
2020년 제23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5. 29. ~ 6. 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5. 29.	시청률	0.002

【총 평】

<최일구의 정말> 제29회는 해양경찰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바다 안전 지키는 새로운 해양경찰 비전”편을 방송했다. 해양경찰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김홍희 해양경찰장과 함께 68년 역사를 지닌 해양경찰청의 역사와 성과, 2017년 11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난 해양경찰의 변화와 혁신을 담았다.

특히 해양경찰의 업무는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큰 질책을 받고 최근에 더욱 개선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해양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기에도 충분했다. 1953년에 창설된 해양경찰청이 바다안전지킴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속도감 있는 해양경찰의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알찬 시간이었다.

【구성 및 내용】

지난 3월 취임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의 제복이 시작부터 눈길을 끌었고, 바다에서 태어나고 어부 아버지를 두었다는 이색적인 이력과 평생을 바다 업무를 맡아온 실무 경험을 잘 살려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의 차이를 잘 설명하여 주었고 바다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경찰 업무에 관해 폭넓은 정보와 이해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해양경찰청의 역사와 조직의 변화를 주로 다루었고 코로나19 지원 등이 언급되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에 대한 내용부터 주요 어선사고의 유형과 대책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바다, 안전한 대한민국에 얘기했다. 또, 해양주권 수호와 깨끗한 바다를 위해 한중 경계 수역 문제와 불법 조업 단속, 최신형 경비함 건조 계획 등 주권 수호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현장에 강한 스마트 해양경찰을 위해 4차 산업에 대비하는 해양 안전 시스템과 인사관리, 신뢰 받는 해양 경찰이 되기 위한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했다.

세월호 참사로 부터 얻은 교훈으로 구조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해양경찰청을 진두지휘하는 부분에는 많은 공감과 격려를 보내게 하였다. 특히, 긴급 전화번호를 119로 통합했다고 알려준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예전에도 해양경찰 전담번호가 있었지만 일반 국민이 인지하지 못해 119로 통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전화를 받은 이후 어떻게 전담부서에 연락이 되고 어떤 과정으로 출동을 하게 되는지 설명이 잘 되었다.

해양경찰청의 “바다 안전 지키는 새로운 해양경찰 비전”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을 살린 콘텐츠로 육지 못지않게 중요한 대한민국 바다를 알린 프로그램이었다. 해양경찰청의 다양한 역할과 조직을 비롯해 해양경찰법 시행과 바다안전의 새로운 비전, 현장에 강한 스마트 정책들 등이 프로그램에 잘 묻어났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책임지려는 소명의식도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5. 30.	시청률	0.001

【총 평】

<밥보다 법> 제13회는 ‘동물학대, 이제 그만 멈추시오’는 동물학대란 어디까지인지 동물학대 범위를 규정하고 정리해주었다. 특히, 동물학대 인줄 모르고 지나쳤던 동물학대와 펫티켓, 개물림 사고 등 우리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반려동물과 잘 지내기 위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경각심과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였다.

특히, ‘동물학대와 동물권’이라는 폭넓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않은 구성의 집중력, 국내외 동물법 사례까지 다루며 다양한 시각 제공, 순발력 있는 진행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구성 및 내용】

동물학대와 동물권에 관해 전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애정이 돋보였고 주로 학대 관련 처벌에 많은 비중을 두었지만 입양과 파양 등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상황과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동물학대 사례에만 집중해서 다루었는데 가해자의 심리에 관해 듣고 나니 공감 가는 내용이라 설득력이 있었다. 동물을 학대하면서 힘과 권력, 우월의식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람보다 하찮은 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인격의 성숙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다.

반려동물의 주인 여부에 따라 처벌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주인이 없는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으면 동물보호법에 의한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잘 정리하여 주었다. 동물의 입양 및 파양까지의 현실적 제도를 만들어 보완하여 비록 동물이지만 사람과 같은 인격체로서 대하여 모든 절차가 명확하고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공감되었고,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한 부분도 기억에 남았다.

동물판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나 최근에 논란이 된 수의대생 유튜버 반려동물 학대 논란도 적절히 인용하여 어떤 기준에서 동물 학대가 될 수 있으며 수의사 자격 박탈 여부에 관한 부분도 살펴보아 흥미로웠고 역시 동물 학대법의 한계를 실감하게 하는 측면도 있었다. 또, 반려견의 성형수술과 동물축제에 관한 내용도 덧붙였는데 이 부분도 학대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 상당히 좋았지만

또,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동물학대법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동물 학대법이 얼마나 미흡한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고 앞으로 산재한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한 점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다. 전반적으로 혐오스러운 사건이 많이 언급되어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는데 적절한 언어순화와 화면처리로 무난하게 잘 다루었고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더욱 강조하여 동물 학대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방송이 되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5. 30.	시청률	0.008

【총 평】

<우리동네 개선문> 제25회는 충청남도의 '안녕한 한 끼 나눔' 봉사로 사회 취약계층에 도시락 전달사업과 국민안전 위협하는 도로경계 문제를 안전신문고 현장점검으로 해결한 두 가지 수범 사례를 방송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충실히 살렸다.

충청남도가 벌이는 사회취약계층 도시락 전달사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식사 해결이 어려워진 결식아동, 독거노인의 점심식사를 해결해주는 사업이어서 복지차원과 코로나 극복 차원 에서도 의미가 큰 아이템이었다.

또, 도로 경계문제가 주민 안전을 위협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현장점검으로 해결한 아이템은 공무원들의 현장확인 점검 수범사례, 사망감과 위민행정 본보기를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와 함께 안전신문고 제도 알림이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KTV 기자가 직접 문제가 된 현장점검에 나서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벌이는 모습에서 <우리동네 개선문>이 표방하는 'KTV기자가 함께하는' 구호를 실감할 수 있었다. 민원현장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떻게 해결되고, 사후 주민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구성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으로 오히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찬전달 사업 등이 중지되어 어려움이 배가되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안녕한 한 끼 드림'(식사 전달 사업)을 소개하면서 "취약계층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방법까지 전달했다. 우리가 평소 인지하지 못한 점심식사 한 끼의 소중함과 취약계층에 대해 한층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총 3만 7천여 가구에 매일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도로 경계와 관련한 두 가지 민원에 대한 취재에서 나타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모습은 행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장소', '공원 진입 입구(턱을 낮춘 장소)가 차도와 이어져 차와 보행자가 동선이 겹칠 수 있는 부분' 등을 지적하고, 해결조치 과정을 지켜봤다. 또, 차도와 인도 간 경계가 분명치 않은 곳들을 소개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의미도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평상시 '보행 시' 안전주의도 당부하는 1석2조 효과가 있었다.

특히, 도로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의 리얼한 인터뷰와 행정안전부와 대덕구청 공무원이 현장에서 문제점을 확인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보여줘 마치 현장 실사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사안이 이미 해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5. 31.	시청률	0.000

【총 평】

<PD리포트 이슈本> 제297회는 5월10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중심으로 연설의 배경과 핵심내용, 기대효과 등을 집중 분석해보는 기획으로 <포스트 코리아를 전망한다>를 방송해 주목도를 높였다. 대통령 연설을 내용에 따라 선도형 경제, 한국형 뉴딜 국가프로젝트,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 취업지원제도, 인간안보 중심의 국제협력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다룬 구성도 몰입도를 이끌었다. 대통령 취임 3주년과 '포스트 코리아'과제를 연결시켜 정책방향을 알리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KTV의 정체성을 제고했다. 또, 관련 전문가를 찾아 정책의 핵심내용과 배경, 평가 분석과정을 거친 뒤 솔루션을 들어보는 진행이 전문성과 설득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구성 및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주년 특별연설 키워드는 '포스트 코로나'로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 등을 제시했으며 이에 국정운영의 4가지 핵심이 변화시킬 한국을 들여다보았다.

■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K방역을 비롯하여 새로운 모형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세계의 선도적인 역할이 가능해졌다. 특히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4차산업 혁명을 가하여 선도형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다.

■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부양책으로 많이 활용한 뉴딜 정책은 보통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디지털 기반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SOC의 디지털화 등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 고용보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전망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1차 고용보험, 2차 국민취업지원제도 3차 직접 일자리 제도 등 3단계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운용하여 국민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인간안보 중심의 국제협력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특히 새로운 감염병에 한국의 접근방식이 유의미하다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 생존의 공간 부분에서 호평을 받을만한 요소가 많았다.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겠다는 것은 과거 냉전체제에서는 국가안보가 굉장히 중요했듯이 인간안보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안보에 대한 광의적인 해석을 통해 인간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월 좀 아는 의사 K닥터		
방송일자	2020. 5. 31.	시청률	0.064

【총 평】

<월 좀 아는 의사 K 닥터> 제6회는 ‘나는 치매에 걸릴 사람일까?’를 방송했다. 치매전조 증상을 통한 치매 예방법, 치매 관련 속설, 아포이 유전자와 생활습관, 치매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과 유형,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가성치매 등 백세시대 뇌 건강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준 유익한 시간이었다.

백세 시대를 살면서 누구도 치매에서 자유로워 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더욱 눈길을 많이 끌게 되는 주제였다. 그 동안은 아예 모르거나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설명해주어 궁금증을 덜어주기도 했고 치매조기검사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언급해서 가장 눈길을 많이 끌었다.

【구성 및 내용】

백세시대에 벌어지는 교체 불가능한 유일한 장기인 신비한 뇌 이야기, 치매 잘 걸리는 유형, 뇌 손상 증세로 빚어지는 문제, 가성치매 등 치매와 관련한 궁금증과 예방법을 핵심 있게 잘 정리한 깔끔한 기획이었다. 치매를 발병시키는 여러 요인과 이를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아포이 유전자 검사에 관해 소개했다. 아포이 유전자가 있으면 뇌가 훨씬 빨리 늙게 되어 알츠하이머로 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검사해보면 미리 치매가능성 여부를 알게 되어 치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 체크리스트를 통해 치매를 일으키는 요인과 각종 예방책, 기억력 감퇴와 가성치매의 연관성, 뇌를 위한 건강법을 소개했다. 운동을 하지 않거나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자주 먹거나 잠을 잘 못자거나 하는 생활습관만으로도 치매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도 공감되었다. 결국 모든 건강관리는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 형성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몸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몸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질 좋은 수면의 중요성이 저절로 강조되어 많은 정보가 되었다. 가성치매에 대해 설명하고 뇌건강을 지키는 생활속의 팁을 소개하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게 했는데 고스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즉 매일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하라는 것이었다. 또 치매 환자도 적당하게 집안일을 해야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잘 설명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같은 병인지? 그동안 혼용해서 쓰고 헷갈렸는데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해주었다. 치매는 여러가지 증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증상이고 그 뇌손상의 원인이 되는 병이 알츠하이머인데 그 치매의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 70% 이상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면 치매라고도 하고 치매에 대부분은 알츠하이머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어 유익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6. 2.	시청률	0.003

【총 평】

<국민리포트> 제1317회는 ‘책 기부 릴레이…착한 소비와 기부를 동시에’, ‘농산물 상품화 지원…부농의 꿈 키워드려요’, 수라상 체험하는 ‘경복궁 별빛야행’ 재개, ‘신안 해저 문화재…첨단 기술로 체험한다.’ 등을 방송했다. ‘책 기부 릴레이’라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특색 있는 문화행사까지 국민리포트다운 특색 있는 리포트를 만들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해서 모은 금액으로 책을 나누고 마음을 치유하자는 ‘힐링 북 릴레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대목이 많은 취재였고, 코로나19로 힘들어진 농촌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특산물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는 지역공동체와 관련 기관의 노력을 담은 리포트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의미 있게 다가왔다. 또, ‘경복궁 별빛야행’과 ‘신안해저문화재’ 소식은 체험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낸 것이 특징적이다.

【구성 및 내용】

책 기부 릴레이를 통한 착한 소비와 기부를 동시에 해결하는 힐링북 릴레이,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기술개발과 이전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을 제고한 사례, 수라상을 맛보며 상황극 등을 준비한 야간 고궁 투어, 첨단기술을 통한 신안 해저 문화재 체험 등으로 구성해 전달했다.

■ 책 기부 릴레이, 착한 소비와 기부를 동시에

힐링북 릴레이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기부하여 이어서 동참할 사람을 지명해 기부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독서는 심리적 방벽이 될 수 있으며 기부 릴레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농산물 상품화 지원, 부농의 꿈 키워드려요

강원도 춘천시의 전통장 마을에는 메주와 막장, 청국장 등을 전통방식으로 생산한다. 하지만 단순히 장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성을 추가하고 특허출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상품가치를 증대시키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기술 개발, 그리고 지역 농가로의 기술이전과 지역특산물 결합을 통해 농가소득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 수라상 맛보는 경복궁 별빛야행 인기

경복궁의 유래나 설명을 상황극 등으로 재미있게 소개하며 국악과 함께하는 임금의 수라상 체험이 진행되었다. 날이 어두워지면 청사초롱을 들고 경복궁 등 고궁의 야경을 즐기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중지된 상태이다.

■ 신안 해저 문화재, 첨단 기술로 체험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이 700년의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323년 중국에서 떠났던 배가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것을 발견했었는데 이에 담긴 이야기를 게임,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로 재현하여 재미있게 전달한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6. 4.	시청률	0.026

【총 평】

<현장 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36회는 '안일함이 부른 참사! 산업 현장 안전사고'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를 통해 산업안전 불감증과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 등의 개괄적인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유익한 방송이었다. 특히, 인재 사고의 문제점을 되짚어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안전 불감증은 산업 현장과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감시자로서 역할과 동참을 강조한 캠페인성 프로그램이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내부사정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이해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현장을 감독하러 나간 관계자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어 무리가 없었다.

최근에도 큰 이슈가 되었던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관해 원칙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좋았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현장과 그렇지 못한 현장을 차례대로 비교한 점이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안일함이 부른 참사! 산업 현장 안전사고'는 대형화재 현장과 진압의 어려움, 산업안전사고의 위험인식 결여로 빚어진 대형 화재사고 반복성 문제를 얘기했다. 2019년 산업재해 현장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추락사고였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50%가 건설업 종사자로 대부분 안전 불감증에서 온 인재 사고임을 알려주었고, 화재, 추락, 넘어짐, 끼임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절실함을 알려주었다. 안전사고 방지는 자신의 삶과 터전을 지키고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을 소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의 인명피해는 안일함이라는 점에서 산업 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제도와 원칙에 어긋난 현장의 업무 관행, 체계화된 시스템 부재로 나타났다.

소방청에서 물류창고와 공사현장, 공공시설, 공동주택, 복합건물 등의 민관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화재예방과 현장공정, 위험물관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소방관련 안전점검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었다. 특히,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와 현장인의 안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산업시설공단 산업현장 안전점검 상황중에 낙하물 방지 설치부분이 되어있지 않은 지적사항을 체크하는데 현장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반박하는 모습에서 안전의식과 철저함이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 민간 건설사가 안전을 위해 마련한 좋은 사례로 사물인터넷시스템을 보여주었는데, 안전수칙 현장 강화 노력과 각국 언어로 안전 알림 서비스, 현장과 직접 소통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인명 최우선을 위해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두가 감시자 역할과 사고예방 참여자로 사회적 환경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